



제1356호 (2023년 1월 24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시공사,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해야…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곳곳 공사비 분쟁…정부,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때는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정비사업 공사비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제 정비사업장에 도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가 배포되는 것은 2010년 옛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가 폐지된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별도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적용했으나 물가 반영 기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합은 시공사에 산출 내역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한 것이었다'며 수십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일기도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 제공이 없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가 품질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지난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 때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종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 공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

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건설 공사비지수가 2021년부터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는 사업장이 굴러갈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한다면 예외적

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공사비,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만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굴착 공사 때 지질 상태가 당초 조사했던 것과는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뒤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도한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면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변형 양식이 활용돼야 공

사비 분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2천451가구 규모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는 이달 초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를 3.3㎡당 431만원에서 517만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조합집행부가 해임되고 내분이 생기며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다.

2천678가구 규모인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도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공사비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은 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나 시공사가 조정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회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되면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 김철민 기자

서천특화시장 큰불 9시간만에 완진…점포 227곳 전소

건물 간격 좁고 강풍 불어 진화 어려움…인명 피해는 없어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났다.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점포 227개가 전소됐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23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자정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격상,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두시간여 만인 23일 오전 1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오전 3시부터 대응 1단계로 하향해 전불 정리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292개 점포 가운데 227개가 불에 탔다.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가 모두 소실됐다.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전통시장 특성상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이 쉽게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서천군은 오후 11시 59분께 '현재 시장 주변 유독가스가 누출 돼 위험하니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04년 9월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식 중형 전통시장으로 개장한 서천특화시장은 연면적 7천18㎡ 규모의 2층 건물에 수산물, 농산물, 생활잡화, 특산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큰불이 나 점포 227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의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송원기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포털 금융파트너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합니다

KB국민은행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경찰 압수수색

마약수사계 소속 직원 휴대전화 확보…언론사도 압색 대상에 포함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이들이 진행했던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인천경찰청 내부에서 특정 언론사 등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의뢰가 들어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

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왕릉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 송원기 기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안전관리 지원현장을 점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동계청소년올림픽에 2만여명 투입해 안전관리 지원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 청장은 볼슬레이·스켈레톤·루

지·스키점프 종목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해 경기장 외곽순찰,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안전활동 현황 등을 살폈다. 이어서 강릉으로 이동해 컬링센터 경비현황과 24시간 운영 중인 경찰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추운 날씨에 장기간 중요한

/ 송진영 기자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천억원 돌파…공적업무 차질빚나

고금리·PF 부실로 건설사 사업 추진 중단…미매각 토지대금도 2조원 육박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서졌다.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원에 육박하는 등 LH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천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반년 만에 또 다시 연체 규모가 5천억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전인 2022년 말 7천492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이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주택 분야 주요 정책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LH 연체이자 가 연 8.5% 수준인데 PF 브릿지론 이자는 연 12%를 넘어가고, 본 PF 전환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가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높은 PF 이자를 내고 무리해서 자금조달을 하느니 차라리 LH 택지대금을 연체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별로는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연체규모가 7개 필지, 약 5천439억원에 달한다. 전체 연체금액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라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단일 택지지구에서 최대 규모의 연체가 발생했다.

특히 인기 택지로 분류되는 성남 복정 1지구의 2개 필지도 2천962억원이 미납 됐고 인천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은 11개 필지에서 2천253억원, 화성 동탄2지구는 5개 필지에서 1천758억원이 각각 연체되는 등 수도권 요지의 택지에서도 줄줄이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못했다.

화성 동탄2 연립주택 부지는 물론 인천 영종과 고양창릉 등 일반 아파트 분양용

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LH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매 실적은 한 건도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공공택지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인기가 높은데 최근 대금 연체와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것은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적신호”라며 “LH의 자금부담 증가는 물론 공공택지 내 민영 아파트 분양도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택지 연체 규모가 커지고 미매각 토지가 늘어나면서 LH의 공적업무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연초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3기 신도시 건설과 5년 내 ‘주택 270만가구+α’ 건설 등 기존 LH의 핵심 업무 외에도 LH의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건설사의 사업부지를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또는 매각하도록 하고,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및 공공투자 조기집행 등을 주문했다.

/ 곽현주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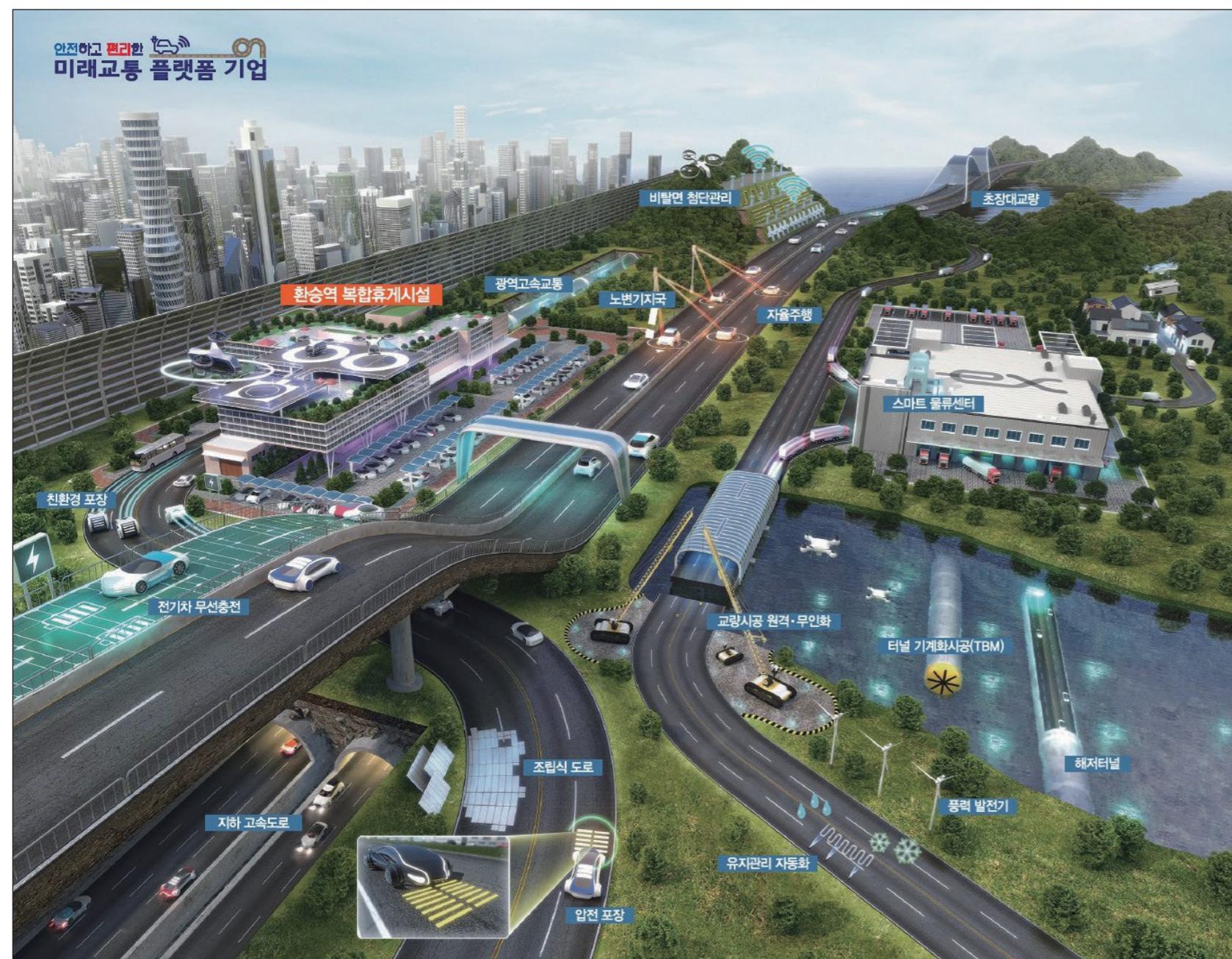
참사 관리자 모두 검찰 손 떠나 법인 포함 총 23명 재판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 검사)는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던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께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기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 박규성 기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스마트한 진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디지털화, 복합환승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물류 구축, 고속도로 입체 개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김진성측 “무죄주장 대신해서 안했으면…季와 마주한 재판 두렵다”

李 “백현동 사건서도 유리한 내용 제외”…검찰 “사실과 달라”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약 16분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과거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되었고, 저로 인해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김씨와 저는 일종의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키로 했다. 이 대표는 별도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김씨와 제가 2018년 말 나는 통화 녹취록을 보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연락한 상황으로 제가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온다”라며 “김씨가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을 언급하며 김인섭 씨가 재판받고 있다고 얘기해준다”고 설명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에 로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만약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녹취록을 제시했다면 저는 ‘이것 봐라, 2018년 12월까지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반론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사건에도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뺏다고 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다”며 “이 대표가 김씨의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보내고, 문자나 통화 내역이 다 있는데 왜 관계가 6년간 단절됐다고 뜬금없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의 녹취록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이영찬 기자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심우정 차관 임명 후속 인사
尹·韓과 인연 깊은 ‘엘리트 검사’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2022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을 만큼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복심’ 내지 ‘오른팔’로도 불렸다.

권순정 신임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2020년에는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민감한 논란에 대해 윤총장의 뜻을 충실히 언론에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5월부터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 위원장을 보좌했다.

/ 민자혁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문 전 대통령 ‘길위에 김대중’ 당원들과 관람…“아주 감동적”

“제가 단체관람 제안…김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행동하는 양심되라고 당부했을 것”



영화 ‘길위에 김대중’ 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제 가슴에 가장 간절하게 남아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장례식날 권양숙 여사 앞에서 오열했던 모습으로 오늘 영화에서 그분이 5·18묘역 앞에서 오열했던 모습과 똑같았다”며 기억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지금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 관계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신신당부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래를 좌우할 선거가 다가오는데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지금의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선거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영화 소감을 밝힌 후 영화 제작진인 시네마6411 최낙용 대표에게 감사 꽃다발을 전하고 참석자들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했다. / 배도현 기자

‘구속’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3월 1일 서울서 중앙당 창당대회
宋 “민주당의 ‘우당’ 될 것”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송 전 대표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 뒤 최종 중앙당 창당대회는 3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법조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송영길 전 대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노건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이낙연 새로운미래, 제3지대 통합협의체 가동

野 탈당파 신당 포함해 3당 대화 시작…28일 첫 공개토론회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새로운미래·미래연합이 통합 점점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미래연합 정태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개혁비전, 미래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개혁신당은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연합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 비전 협의회'를 구성해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비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당 추진세력 공동 비전대화 관련 기자회견

오는 28일에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한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연다.

천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이 공통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그걸 가지고 각자 지지층도 나

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내지는 대화체를 가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합 일정에 대해선 "꼭 정해둔 타임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다"며

"몇차례 비전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연대

조태열, 기업 목소리부터 듣는다

경제단체장 면담 줄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제계와 접점을 넓히며 경제·통상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오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고, 이어 24일에는 대한상공회 의소를 찾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5단체장과 차례로 면담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초구 양재동 엘

타워에서 열린 '2024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조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었던 데다가 외교 수장 참석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11년 전인 2013년 경제·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에 취임한 직후에도 벤처기업협회를 찾은 인연이 있다.

조 장관이 이처럼 취임과 동시에 경제

관련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는 것은 그의 풍부한 통상외교 경험과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중시하는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장관으로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경제단체장 교류 자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전 외교장관도 '외교부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와 재외공관의 수출 전진기지화 등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 김윤성 기자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민주 "尹대통령 총선 개입 강해질수록 심판 강도도 세질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불법"…'정치중립의무 위반' 고발장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함께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김경을 비대위원장의 서울 마포를 출마를 둘러싼 '사천'(私薦)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공천이든 (대통령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 뒤로 숨는 듯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정권)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은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미 고발장까지 쓰고 있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확실한 피고발인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피고발인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으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 처리의 당위성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계획된 갈등이든, 실제 권력 투쟁이든 상관 없다"며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

했다.

여권 내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구원(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 법의 재의결에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 정치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여권의 갈등에 '훈수'를 두는 듯한 목소리도 나왔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명품) 빼의 전쟁"은 '권력 투쟁'이라며 "이 사태를 봉합하려면 한 위원장이 공천, 특검(문제)에 백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한 위원장이 전국 투어를 하며 '나는 태양이다'라고 한 것처럼 해석됐다"며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에 잘못 보여도 살아남는 길이 있지만, 최근에 잘못 보이면 죽는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별을 받고 나중에 뜯떳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전씨의 실제에 대해 물었고 고용인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리다이스 회장의 훈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씨와 공모해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송진영 기자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예 지부장)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냈고, 선고를 나흘 앞둔 이날에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 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 조규현 기자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에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임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

가령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천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응역 대금 지급(약 4천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에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권도준 기자



‘아파트 소화기 난동’ 가담한 여중생, 자택에도 분말 뿌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분말 분사 사건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자택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친부 신고로 적발됐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B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협의가 이

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이상으로 죽벌소년 연령은 아닌 B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며 “B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박민재 기자

포항 앞바다서 5.8m 맹크고래 훈획…“그물에 감겨 죽어”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km 해상에서 20t급 어선 A호 선장이 고래를 훈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선장은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이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길이 5.81m, 둘레 2.81m인 암컷 맹크고래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 최정식 기자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험급여지급



빠른 배우를 듣는!

02 요양 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추가방법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 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



“미 보는 대만인 의구심 커져…트럼프 당선시 상황 악화 우려도”

미 뉴욕타임스 “버림받은 과거 역사적 배경도 기인…대만인, 전략적 명확성 원해”

‘미중 대리전’ 성격을 띠고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징더가 승리했음에도 “미국에 대한 대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대만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교착상태에 놓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은 글로벌 갈등 상황에 대한 개입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만인들 사이에 ‘과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겠느냐’는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선거 전에 이뤄진 대만인 대상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예컨대 대만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산하 유럽·미국학연구소(IEAS)가 지난해 9월 중순 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대만인이 34.03%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대만인들보다는 4배 가까이 많았지만 2021년 조사 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45.35%보다 11%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NYT는 또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면 대만인들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라이징더 당선 이후 이런 기류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NYT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토론을 주제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인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미국)가 자신들을 진짜 도와줄 힘이나 관심이 부족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운전대를 놓아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 대만인들이 많다고도 신문은 지적했다.

이같은 미국에 대한 대만의 불신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자리잡고 있다.

1950년부터 대만에 주둔했던 미군은 1971년 당시 약 9천여명이 주둔했지만 1979년 미·중 수교를 계기로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싱크탱크 ‘미국-대만 위치’ 편집인 재스민 리는 “대만인은 과거에 버림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해 돈을 쟁기고 대만의 반도체만 원한다는 불만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미 대만인인 에이미 추는 신문에 이같은 불만을 전하면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대만 내부의 이같은 여론은 미국 자체를 불신하기보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신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나서 달라는 희망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 박현욱 기자



파키스탄 외교차관 만난 쌈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장

中, 이란·파키스탄 충돌 ‘중재’ “양국 관계개선에 건설적 역할”

중국이 최근 상대 영토 내 공습을 주고 받으며 충돌한 이란과 파키스탄 간에 확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이에 이란·파키스탄과 모두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은 지난 18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면서 “만약 양국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사태의 진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자오쉬·쑨웨이동 부부장의 활동 내용에 관한 질문에 “중국은 이란·파키스탄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은 모두 중국의 좋은 친구”라면 서 “우리는 양국 필요에 따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중국이 중재에 나섰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앞서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 내 이란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고, 파키스탄은 18일 이란 내 화에 핍의한 상태다. / 오창섭 기자

카메룬, 세계 최초 어린이 말라리아 백신 접종 시작

중부 아프리카 카메룬이 22일(현지시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말라리아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카메룬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에게 정기적으로 말라리아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됐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카메룬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내년까



살충제 등 기준의 말라리아 예방 도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급성열병으로 아프

리카 등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발병한다.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약 2억5천만명의 감염자 가운데 60만명가량이 사망하며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다. 카메룬의 말라리아 백신 확보를 돋는 세계백신 면역연합의 책임자 아우렐리아 응우옌은

“말라리아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20개국과 협력 중”이라며 “2025년까지 600만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순찬 기자

“북한판 이스칸데르, ‘패트리엇 대응’ 우크라전 첫 실전무대”

“패트리엇, 러 이스칸데르 미사일 요격 성공”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이 북한 미사일의 실전 견증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등을 인용해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패트리엇의 요격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러시아가 키이우의 패트리엇 포대를 공격했을 당시 패트리엇 시스템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킨잘 미사일 총 34기를 모두 격추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KN-23 등은 그 크기와 비행 원리 측면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린다.

독일철도 또 파업…대중교통 ‘D티켓’은 가격 오를듯

독일 철도기관사들이 노동시간 단축

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또 파업에 들어

간다. 독일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오는

24일 오전 2시(현지시간)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열차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열차 운행 중

단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기관사

파업 때 독일철도(DB)가 운영하는 ICE 등

장거리 열차는 평소의 약 20%만 운행한

다. 근거리 열차 역시 지역에 따라 운행이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고 목표물을 타격할 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패트리엇 시스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산 미사일이 이 같은 장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CSIS는 분석했다.

산 사이크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담당 부국장은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효과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근래 러시아에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과 복수의 발사대를 제공했으며,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6일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집된 미사일 파편을 분석한 결과, 미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테通讯员)를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를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들여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패트리엇 포대와 다른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 고현성 기자

483만원)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DB는 최근 주당 37시간 근로, 물가상승 보상금 2천850유로(약 416만원) 등 전진된 제안을 내놨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노조는 시즌 제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근로시간을 3시간 줄이면 인력을 10% 더 고용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거리 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월 49유로(약 7만원)에 이용하는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은 조만간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 최민용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대한민국 갓생러들

여기 주목!

오늘부터 씽큐이다!

금융 케어도 생활 혜택도
모두 챙기는 갓생러들을 위해!
이제는 금융과 생활의 밸런스 완전체,
NH 씽큐로 쉽게 씽큐하자!

NH 씽큐 뱅크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T가 함께 응원합니다.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상품문의
1588-0114

KT 하이오더

- 테이블 회전을 개선·운영비 절감
- 다양한 결제수단·외국어 지원
-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직영 설치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

‘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



됐다.

단통법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을 폐지 추진의 배경으로 꼽았다.

조6천억원에 불과하던 이동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0년 3조5천억원을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이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며 2014년 탄생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문제점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법 시행 직후인 2014년까지만 해도 1

특히 단통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며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는 동시에 소비자,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종선이 임박한데다, 찬반 논란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으나, 방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도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만큼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로 통신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용자 권리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 할 것”이라며 “과도한 출혈 경쟁,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오픈AI 샘올트먼 이번주 방한 삼성·SK와 AI반도체 협력 기대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이번주 한국을 찾아 AI 칩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다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이번주 중후반 한국을 방문해 6시간간 가량 머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AI 반도체 개발·공급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트먼 CEO의 방한은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방한 기간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과의 면담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AI 시대에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을 두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트먼 CEO는 앞서 작년 방한 당시 국내 스타트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딥테크(선행기술) 기업에 관심이 많다”며 “플랫폼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많은 기회를 탐방하고 칩 개발도 함께하면서 협력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올트먼 CEO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픈AI는 올해 거대언어모델(LLM)인 GPT-4의 주요 업그레이드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고가의 AI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AI 칩 생산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의 AI 기업인 G42,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암)을 보유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 등과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올트먼 CEO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동생이자 G42의 소유주인 타흐ون 빈 자예드 국가보안 보좌관 등과 자금 조달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백도영 기자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유통법 개정 첨첩산중

정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도 가속화 계획…유통법 국회 계류 중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이 현실화하면 유통사업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

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이후 유통시장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통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약화했고, 오히려 국민 불편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공휴일 휴무에 따른 불편이 커졌다.

또 물류센터를 갖춘 수도권 및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새벽배송이 가능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지금은 도서·산간 지역은 물론 인근에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 평일로 전환한 충북 청주시 시민과 대구시 상인, 유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서울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노승만 기자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총력”

수급 상황 점검 회의…“공급 확대·할인지원 강화”

한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설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현재 주요 성수품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인상 등으로 없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는 설 명절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 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과, 배추, 소고기 등 10대 농축산물 성수품을 대체로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 판매 지원에 5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소매가 상승 폭을 도매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강세가 지속 중”이라며 “설 성수기 계약재배와 농협 물량 7만4천t(톤)을 공급하고 설 일주일 전부터 제수



용 사과·배 3개 들이 90만طن에 대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성이 있는 계란은 설 성수기 공급량을 1천500t으로 확대한다”며 “18일부터는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임현주 기자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시나리오 연구_교통안전문화연구소

Level 4 Driving Scenario
Actual accident situations during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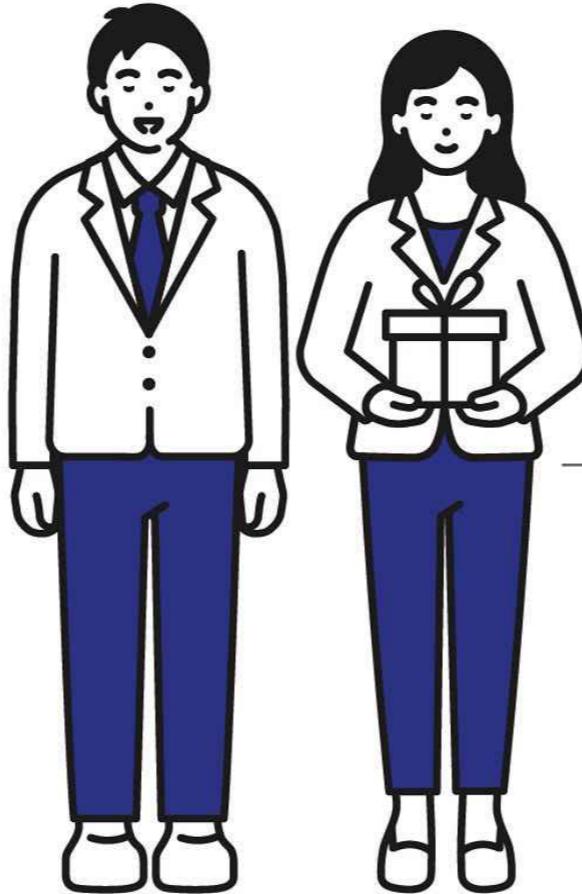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_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_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_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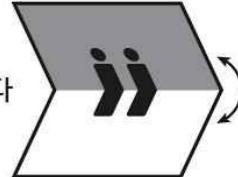
SK텔레콤 장기 우수 고객님만의 특별한 혜택

special T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문을 접으면 인사를 합니다



SK텔레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고객님께 보답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장기 우수 고객 케어 프로그램
special T

앞으로도 SK텔레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SK telecom

장기 우수 고객 케어 프로그램 special T (스페셜 T)

데이터 추가 혜택

이용 기간 5년 이상 장기 우수 고객님은 기존 리필 쿠폰에 더해
매년 가입하신 달에 가입 연수만큼 추가 데이터 증정

장기 우수 고객 전용 이벤트

새해 인사 이모티콘 증정 | 공연 특별 할인 | 프라이빗 퍼크니 초대 | Tum(티움) 체험관 초대
이용 기간 10년 이상 장기 우수 고객님께 시즌별 추가 혜택

T 멤버십 VIP 업그레이드

연간 납부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 승급
이용 기간 30년 이상 장기 우수 고객님은 조건 없이 VIP 승급

T 월드 확인하러 가기



용인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정부가 표절? 김동연이 표절”

이상일 시장, 김 지사 “정부가 경기도 정책 표절” 주장에 반박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22일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작년 6월 김 지사가 말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작년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60조원) 등의 상세한 계획을 설명한 것을 놓고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원



지난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3일 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상황에서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는 재탕 삼탕한 금액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더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

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제가 경기도 중심 과제 중에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발표된 이동·남사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당시 용인이 철통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성사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는 의논한 적이 없고, 김 지사와는 아무런 상

관이 없는데 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가 말한 ‘작년 6월에 밝혔다는 구상’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법정부 추진자원단 회의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과감한 규제 혁신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당시 내용은 정부가 3개월 더 전에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었고,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주변 미래연구단지와 그 주변 협력업체 입주 단지, 이동·남사첨단시스템 구역 내 종전 기업 이전을 위한 신규 지방산단 등 여러 사업이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 위원의 ‘발목잡기’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행겨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 최형민 기자



지난 11일 무산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부천 공원에 GTX-B노선 변전소 설치 논란…시의회도 반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에 전력을 공급할 고압 변전소를 경기 부천 호수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부천시에 이어 시의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GTX-B노선의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26명 모두가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GTX-B노선에 전력을 공급할 고압 변전소의 위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대체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희 의원은 “부천 시민들은 상동 변전소 설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조치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자파 영향에 관한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어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은 평가항목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평가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천시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뒤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 측에 촉구했다.

15만4천볼트(V)의 전력을 5만5천볼트(V)로 낮춰 GTX-B노선에 공급할 상동 변전소는 호수공원 남쪽 주차장 지하 3m 아래에 지어질 예정이다.

평소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부천 주민들은 변전소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가 많아 전자파 위험 노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같은 입장이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국회·국토교통부·환경부 등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석진 기자

무안 겨울승어축제 성황…‘미식 관광’ 새장 열어



승어 축제 인파

청정 전남 무안의 겨울철 대표 수산물 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린 승어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1일 무안

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린 승어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승어와 관련한 퀴즈를 풀고 선물도 쟁

기는 승어 퀴즈대회, 승어와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깜짝경매 이벤트도 쏠쏠한 재미를 선사했다.

무안 농수산물인 고구마 김 감태 장어 등을 맛보고 살 수 있는 농수특산물 판매 존, 해제 새마을부녀회 로컬푸드존, 황토 고구마 요리 판매존 등도 일기를 끌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겨울 승어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대한민국 축구와 교보생명의 팀플레이는 계속된다

꿈만 같던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 시절에도
잘 싸웠지만 패배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날에도
험난한 경우의 수를 뚫고 가슴 뜨거워했던 그 새벽에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 결엔
언제나 교보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경기장 밖, 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변화없이 함께 뛰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장 “대중교통 할인통합 공동연구…당장은 어려워”



대중교통 정기권 관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

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앞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장을 일제히 밝혔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스템이 서로 다른 만큼 즉각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협동 설명회에서 3개 광역자체가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고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협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대중교통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천, 서울, 경기가 동일한 조건 아래 정책을 추진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시장은 3개 시도 간 교통 여건과 체계가 달라 지역 특성에 따라 교통정책을 추진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 송유영 기자

오세훈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끊임없이 통합 노력”

김동연·유정복도 “쉽지 않지만 국토부·서울시와 협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제시한 대중교통 할인혜택 방안이 명칭, 범위 등을 달리해 시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혜택에 대해 “당장의 통합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혜택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와 준공 영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간 교통 시스템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지사는 “3개 시도 간 완전한 통합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국토교통부 등과 서로 협조하고 더욱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교통 편의를 늘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신한은행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 [신한 연금라운지] 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 일간: 11월 22일 오픈 (031-812-3655, 주영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노원: 11월 27일 오픈 (02-6224-5499,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증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경기도, 하천 오염사고 화성·평택시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확산 방지·조기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의견서도



하천 오염 현장 점검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근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의 확산 방지와 사고의 조기 수습·복구 등을 위해 화성·평택시 하천 수질오염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진위천 합류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화성시 양감면 양감수질복원센터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흥기원·안민석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라든지 특별교부세 신청도 협력하겠다”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환경단체나 주민들께도 아주 투명하게 알려드려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천 오염 사고는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19곳에 방제 둑을 설치하고 탱크로리를 투입해 21일까지 오염수 3만5천500t을 처리했다.

/ 신재일 기자

경기도는 화재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화성시와 평택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에서 “화성시 양감면 화재로 화성·평택시에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수습 및 긴급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8일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도는 피해 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18일 행안부

에 제출했다.

평택시가 14일 청북읍과 오성면을, 화성시가 15일 양감면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행안부가 경기도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검토 의견서에서 “하천 오염구간은 사고 발생 지점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관리천 하류부(진위천 합류부)까지 약 8.5km이며, 오염수 총량은 침입수를 고려해 5만t으로 추정된다”며 “수질검사 결과 10일 기준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의 2~36배 초과,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는 적시 방제 및 오염수 처리를 통해 인근 하천 유입 등 피해 지역과 오염 구간이 확대되

대구시, 조호바루·호치민·칭다오 청두 항공노선 추진

대구시가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노선 추가 취

22일 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현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조호바루(말레이시아), 호치민(베트남), 칭다오(중국)와 더불어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에 부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또 “지난해 청렴도 평가

에서 (대구시가) 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를 떨쳐내고 2등급을 달성했다”면서 “올해는 2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1등급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지역 주요 재래시장에서 여전히 대형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최지원 기자



출근길 추위에 움츠리는 시민들

거리상담반 50→124명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불어닥친 가운데 서울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전날 밤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자 평시 50명으로 운영하던 거리상담반을 124명으로 확대 운영했다.

거리상담반은 추위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의 안전을 살피고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거리상담반은 전날 현장점검을 통해 물품지급(1천86건), 무료급식(1천435명), 병원 연계(1건) 활동을 진행했다.

25일까지 한파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이 기간 노숙인 거리 상담 및 방한물품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시에 따르면 전날 노숙인들이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는 총 346명(시설 333명·응급쪽방 13명)이

용했다. 노숙인을 위한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3만6천 298명에 대해서는 한파주의보 발효 기간 전화를 걸어 격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추위에 외출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 2천253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밀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 주 2회였던 밀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거리상당반은 전날 현장점검을 통해 물품지급(1천86건), 무료급식(1천435명), 병원 연계(1건) 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10만원)를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하고,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난방비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춘천시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구축…인공지능 카메라 활용

지역 내 초교 주변 43곳·터미널·대룡공원 일대 설치 예정



총 45곳에 4월까지 인공지능 CCTV 94대를 설치한다.

800만 화소로 기존 200만 화소 보다 4배가량 밝다. 특히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 사진을 입력하면 보다 빠르게 분석해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수배 차량 추적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는 방학 기간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CCTV 설치 기반 시설이 없었던 봄내초교의 경우 정문 주변을 굽착해 설치 여건을 마련한 상태다.

퇴계초교는 학교와 논의해 학교 시설물을 활용, 정문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22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학교 측에 감사드린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경기교육청-교총, 특수교사 추가 배치 등 ‘교섭·협의’ 합의

경기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선생님들이 모든 역할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김유정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가전을 나답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안정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하나은행**에서 준비하세요

내 집 하나로 연금에서 노후까지!

내 집에서 평생 거주



연금으로 평생 보장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MOU 체결



하나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0304호(2024.01.12) / CC브랜드240108-0068

빙속 정희단, 여자 500M 은메달…신선웅은 남자 500M 3위

빙속 여자 단거리 기대주 정희단(16·선사고)과 남자 단거리 유망주 신선웅(16·별내고)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이하 강원 2024)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희단은 22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9초64의 기록으로 앙겔 데일먼(39초28·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5조 아웃코스에서 오스트리아 예아니 네 로스너와 달린 정희단은 레이스 초반 돌발변수를 겪었다. 로스너가 100m 구간을 앞두고 넘어진 것.

정희단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레이스를 이어갔다. 첫 100m 구간을 전체 2



22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 정희단이 태극기를 들고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위 기록인 10초76에 끊었다.

마지 400m를 28초88에 통과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최준용 기자

신진서, KB바둑리그 4라운드 만에 7연승…킥스는 중위권 도약

원익, 4연승으로 단독 선두…바둑 메카 의정부, 4연패로 최하위



KB바둑리그에서 7연승을 질주중인 신진서

한국 바둑의 '절대 1강' 신진서(23) 9단이 새해부터 KB바둑리그에서 고속 질주를 하고 있다. 신진서는 21일 끝난 2023-2024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까지 파죽의 7연승을 거두며 다음 부문 단독 1위로 나섰다.

소속팀 킥스(Kixx)가 4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신진서가 7승을 거둔 것은 세 차례나 에이스결정전에 출전해 팀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KB바둑리그는 각 팀에서 4명씩 출전해 승패를 가린다.

만약 2승 2패로 동률이 되면 에이스결

정전을 벌여 승패를 결정한다.

4-0, 또는 3-1로 승리하면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에이스결정전에서 이겨 3-2로 승리하면 2점만 준다.

킥스는 이번 시즌 1라운드 원익과의 대결에서 신진서만 승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패해 1-3으로 졌다.

2~4라운드에서는 정관장천과 마한의 심장 영암, 수려한합천을 상대로 2-2를 기록한 뒤 에이스결정전에 출전한 신진서의 활약에 힘입어 모두 3-2로 승리했다.

KB바둑리그는 각 팀에서 4명씩 출전해 승패를 가린다.

만약 2승 2패로 동률이 되면 에이스결

거둔 신진서는 개인 다승 순위에서 부문 2위인 한승주(4승), 박정환(4승 1패), 변상일(4승 2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단독 1위에 나섰다.

킥스는 신진서의 활약에 힘입어 3승 1패, 승점 6점을 확보해 4위로 올라섰다.

킥스는 2022-2023시즌에도 포스트시즌에 막차로 합류한 뒤 신진서의 '원맨쇼'를 앞세워 우승컵까지 차지했다.

반면 랭킹 2위 박정환 9단이 이끄는 원익은 가장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개막전부터 4연승을 기록, 승점 11점으로 단독 선두로 나섰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수려한합천은 4라운드에서 킥스에 일격을 당하면서 3승 1패(승점 9점)로 2위가 됐다.

비단메카 의정부는 4연패(승점 2점)를 당하며 최하위인 8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7시에 열리는 KB바둑리그는 총 14라운드로 정규리그로 순위를 가린 후 상위 네 팀이 스텝레이저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 상금은 2억5천만원, 준우승 1억원, 3위 6천만원, 4위 3천만원이다.

매 경기 승리한 팀은 1천400만원, 패한 팀은 700만원을 받는다.

/ 노승만 기자



올해 프로야구는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올 시즌 KBO리그 공식 타이틀을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로 확정해 발표했다.

KBO리그 스폰서인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신한 SOL'에서 '신한 SOL뱅크'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KBO와 신한은행은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2025시즌까지 연장하며 역대 최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KBO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야구팬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구장을 방문한 야구팬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해 직접적인 교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희수 기자



키움 김혜성, 6억5천만원에 계약

KBO리그 8년 차 최고 연봉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김혜성(24)이 KBO리그 역대 8년 차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했다.

키움은 22일 김혜성과 전년 대비 2억3천만원(54.8%) 오른 연봉 6억5천만원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종전 8년 차 최고 연봉 기록인 나성범(KIA 타이거즈)의 5억5천만원을 가뿐히 넘어서졌다.

김혜성은 2024시즌 팀 내 최고 연봉과 최고 인상액 기록도 보유하게 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김혜성 연자와의 최고 연봉 기록은 입단 동기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차지였다.

3~7년 차 최고 연봉 기록을 같아지웠던 이정후가 미국프로야구(MLB)로 떠나자 김혜성이 빙자리를 채운 것이다.

김혜성은 지난 시즌 137경기 타율

0.335(556타수 186안타) 104득점 57타점으로 활약하며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김혜성도 202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할 계획이다. 키움은 김혜성을 비롯해 2024시즌 연봉 계약 대상자 44명 전원과 계약을 맺쳤다.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한 이주형은 작년 연봉의 두배인 6천600만원을 받아 최고 인상률(100.0%)을 기록했다.

김휘집은 3천600만원(48.60%) 상승한 1억1천만원에 도장을 찍어 데뷔 후 첫 억대 연봉을 받는다. 반면 지난 2년간 타격 부진에 빠진 베테랑 이용구는 작년보다 1억원(-33.3%) 적은 2억원에 사인했다.

/ 오민성 기자

부활한 리디아고, LPGA 개막전 우승…통산 20승 달성



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알레사 파노(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린 리디아고는 이 대회 첫 우승자 LPGA 투어 통산 20번째 정상을 올랐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2만5천 달러(약 3억원)다.

이로써 LPGA 투어에서 20승을 넘긴 15번째 선수가 됐다.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포인트도 1점 추가해 단 1점 날겼다.

일반 대회 우승 1점, 메이저대회 우승 2점, 그리고 베어트로피(시즌 최저타수상)와 올해의 선수, 올림픽 금메달에 1점씩 주는 명예의 전당 포인트는 27점을 모으면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 강소윤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상담문의 1855-1082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체험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데뷔 30주년 박진영 “2031년 12월 환갑 기념 공연할 것”

13년 만의 팬 미팅서 히트곡 열창…일어·영어 비결 묻자 “문단 150개 암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60세가 되는 2031년 환갑 기념 공연을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진영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팬 미팅 ‘프라이데이 나이트’(FRIDAY NIGHT)를 열고 신년 계획을 묻는 팬에게 이렇게 답했다.

박진영의 팬 미팅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그는 “제게는 8년 계획이 있다. 2031년 12월 환갑 기념 공연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1971년 12월생인 박진영은 지난 1994년 ‘날 떠나지 마’로 데뷔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박진영은 “점점 더 간절해지는 말이 있다”라며 “저 소울메이트(박진영 팬덤)라는 말이다. 회사를 이끌면서 작곡가·프로

듀서이기도 하다 보니 가수로서, 가수 박진영을 좋아해 주시는 팬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데뷔곡 ‘날 떠나지 마’를 비롯해 ‘너뿐이야’, ‘웬 위 디스코’(When We Disco) 등 히트곡을 들려줬다.

박진영은 “팬 미팅 세트리스트를 선곡하면서 곡을 들어보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코드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스럽기도 하더라”고 털어놨다. 또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유창한 일본어·영어 실력의 비결로 “오디션에서 나을 법한 대여섯 줄 정도 되는 문단 150개를 무작정 암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중한 팬 분들을 보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삶을 잘 꾸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며 새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 강성윤 기자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 선공개

가사에 설왕설래도

그룹 (여자)아이들이 신곡 ‘와이프’(Wife)를 공개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0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여자)아이들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 ‘와이프’를 선공개했다고 밝혔다.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로 트렌디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특징이다.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들이 예매 랠드색과 흰색 가발 차림으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는 군무를 펼친다.

‘와이프’는 별다른 홍보 없이도 이날 오후 5시 현재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의 ‘톱 100’ 차트에서 96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음원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은유적인 가사가 곡 제목을 고려할 때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면 선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큐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오는 29일 발매되는 정규 2집에는 ‘와이프’를 비롯해 ‘슈퍼 레이디’(Super Lady), ‘리ベン지’(Revenge), ‘돌’(Doll) 등 8곡이 수록된다. 소연뿐 아니라 미연, 민니, 우기도 곡 작업에 참여했다.

/ 배소정 기자

하프마라톤 2번째 완주 주윤발 “홍콩의 ‘포레스트 걸프’될 것”



70세에 가까운 홍콩 톱스타 저우룬파(周潤發)가 두 번째 하프 마라톤에 도전, 2시간 26분 8초 기록으로 완주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저우룬파는 지난 21일 홍콩 침사추이에서 열린 홍콩마라톤에 출전, 주최 측과 취재진의 큰 관심 속에 이같은 기록을 세웠다. 이날 마라톤에는 7만4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록은 그가 지난해 11월 제1회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하프 마

라톤에 처음 도전했을 당시 세웠던 2시간 27분 56초 기록보다 1분 이상 단

축한 것이다.

저우룬파는 경기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많은 어르신이 나와 함께 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면서 “많은 홍콩인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1955년생인 그는 “60세가 지난 2번째 갑자로 보면 나는 겨우 9살”이라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 기록을 2시간 15분으로 단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우룬파는 앞으로 “홍콩의 ‘포레스트 걸프’가 되어 전 세계를 뛰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 박지원 기자

‘데드맨’ 조진웅 “팔다 팔다 이름까지 판 남자…치밀한 각본”



조진웅은 “감독님이 설계한 이야기에 치밀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각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한 만재를 두고 “팔다 팔다 이름까지 판 남자”로 소개하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공포감 등 여러 감정을 날것처럼 드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애는 타고난 지략으로 정치판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컨설턴트 심 여사 역을 소화했다. 만재의 누명을 벗겨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인물이다.

하 감독은 김희애를 캐스팅하기 위해 심 여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썼다.

김희애는 “그동안 보지도 못 한 캐릭터였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배우라면 너무나 탐낼 만한 역할”이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만재를 끌어들이는데, 악당이 될지 만재의 든든한 ‘백’이 될지 기대해달라”며 웃었다.

그 역시 “각본에 전문가가 조사한 것 같은 정확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 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영화 ‘기적’(2021)에서 준경(박정민)의 누나 보경 역으로 얼굴을 알린 이수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만재를 쫓아 희주를 연기했다.

이수경은 “희주는 굉장히 집요하고 끝거운 여성”이라며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던 희주가 만재를 만난 뒤 성격에 변화가 생기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말했다.

/ 최재형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시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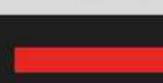
LIVE

수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 관련 자금조달, 수출보험 가입, 수출대금 회수까지

K-SURE가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ksure





우리금융그룹

새
해
아
침
에쓰
는
편
지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그 순간, 자기 소원만 빙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민서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

우리를 위해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사장님들이 더 자주 웃게 해주세요”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